

변준석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송정현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소득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계경제, '소비지표'로 더 정교하게 읽어낸다.

- 2011~2024 가계동향조사 기반의 계층별 소비 구조 및 생활비 부담 진단 -

- 소득 불평등 지수보다 **소비 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나며, 이는 가계 소득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비의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준다.
- **팔마비율(소득 상위 10% 점유율/소득 하위 40% 점유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니계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분위별 점유율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지표이다.
- 외식과 배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식료품비' 비중만 계산하는 전통적인 엔겔계수뿐 아니라 '식사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엔겔계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계의 주거비 부담(슈바베계수)**을 산출할 때는 실제 지출하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의 기회비용과 자가 가구의 의제주거비를 반영할 때 주거비 부담의 실질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 **12대 소비지출 비목** 중 실질지출금액과 명목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하락하는 비목은 교육이고, 모두 상승하는 비목은 보건, 음식·숙박, 오락·문화이다. 교육과 보건 비목의 변화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이고, 음식·숙박, 오락·문화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반려동물 관리, 성인 자기 계발, 운동시설 이용 지출이 새로운 필수 소비로 자리 잡으며 가계 소비 구조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소득은 가계의 자원 확보 능력을 보여주지만, '무엇을 소비하는가'는 삶의 질과 직결됨.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소득 지표만으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연구 질문)**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 중심 지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소비지표 체계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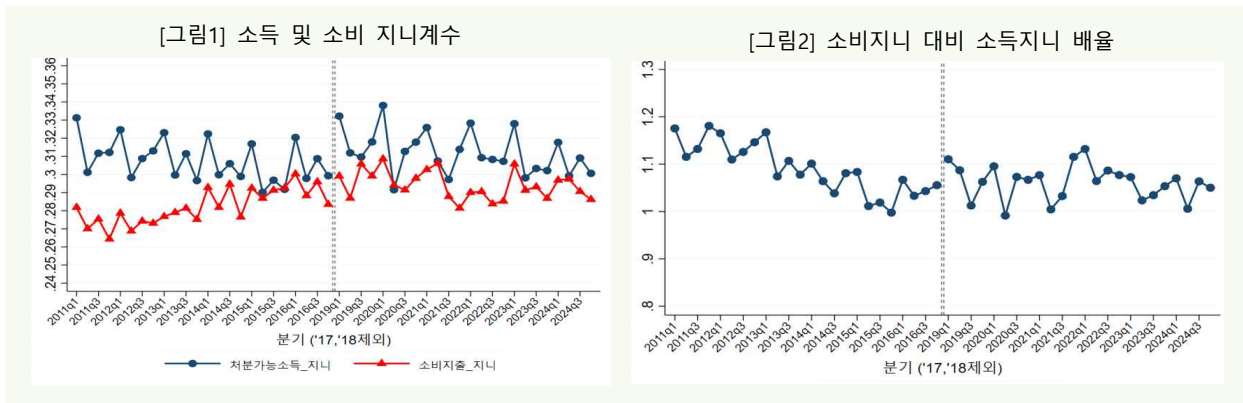
데이터 및 방법

- (활용 데이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1년~2024년)
* 2017년, 2018년 제외
- (표본 및 주요 변수) 연간 약 7,200가구의 지출 항목(식료품비, 주류, 주거·수도·광열, 보건, 교육 등 12대 지출 비목)

주요 결과

① 소비로 본 분배: 소득보다 안정적인 삶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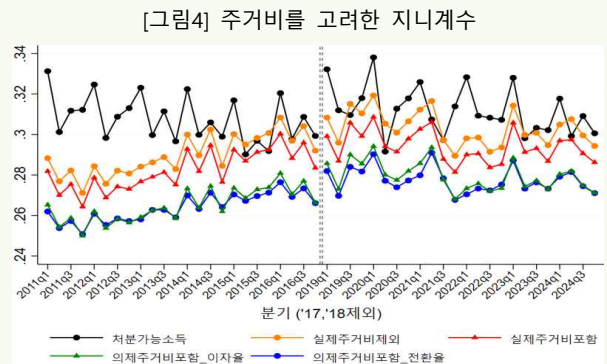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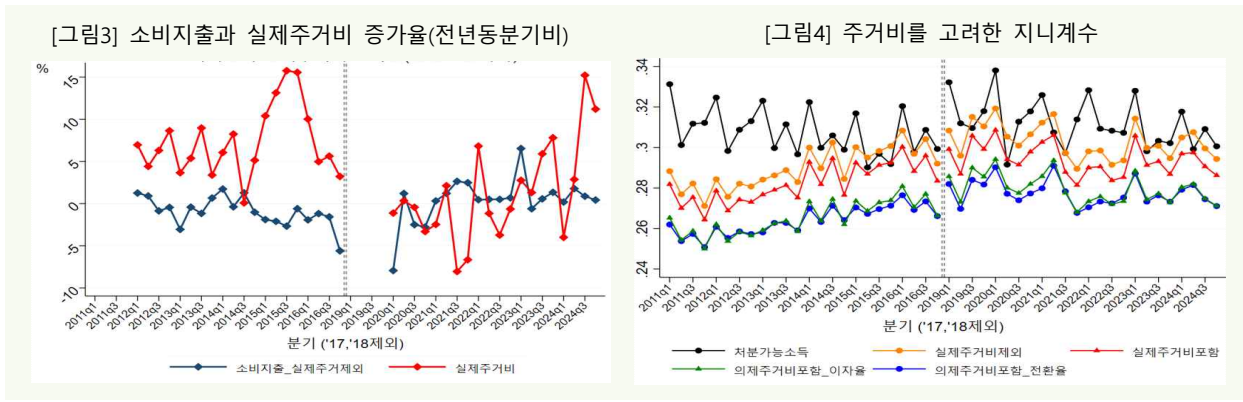
분석 결과, 소비 지니계수는 소득 지니계수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됨. 이는 가계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도 저축이나 대출을 통해 소비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소비 평활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그림1]. 다만, 최근 소득과 소비지표가 동조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그림2].



2010년 이후 다른 소비지출보다 실제 주거비(월세 등 실제 가구가 주거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증가율이 더 심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그림3].

[그림4]를 보면 가구가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처분가능소득)과 소비(실제 주거비제외)의 지니계수는 2019년 이후 상당한 정도의 동조성을 보이지만, 주거비를 포함하면 소득(처분가능소득)지니에 비하여 소비지니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실제 주거비뿐 아니라 자가의 의제주거비(내 집에 살면서 주거 서비스를 스스로 소비하는 그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가상의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소비지니(의제주거비 이자율 또는 전환율 모두)는 소득지니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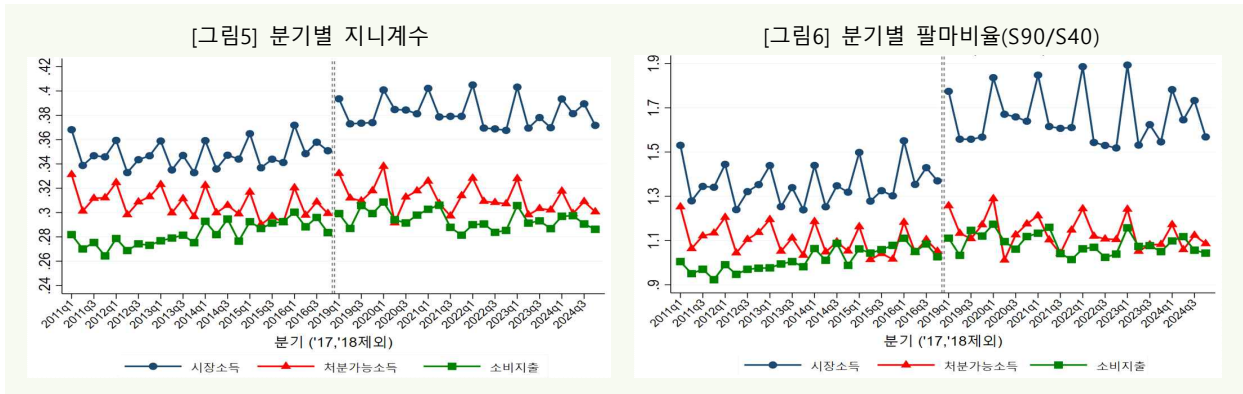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2010년 이후 주거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자가와 전세의 경우 주거서비스 비용이 총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의 격차(소비지니계수)가 커지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보임. 즉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에서 소비지출 중 주거비지출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 소비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주요 결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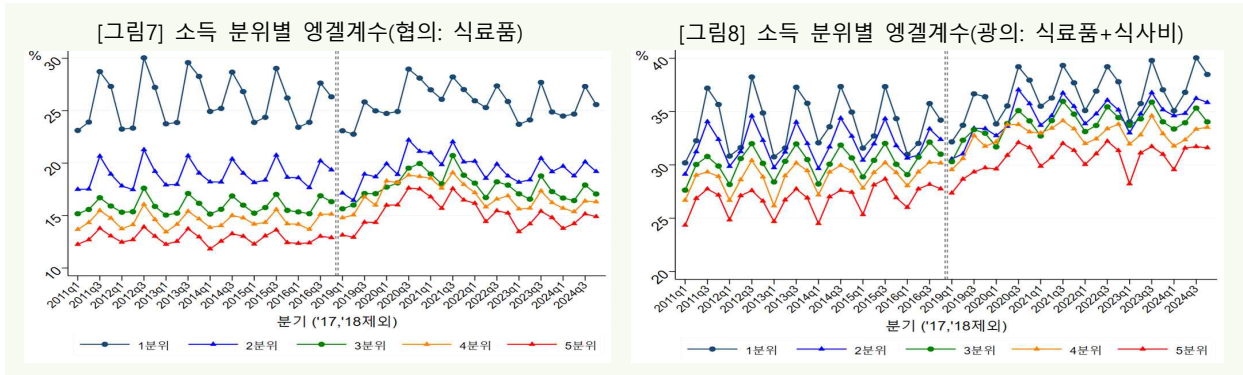
② 팔마비율의 재확인 : 대표성과 직관적 이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지표

팔마비율 중간 50%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질적이라는 전제하에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이 소득 하위 40%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그림5~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모두에서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은 매우 유사한 흐름을 확인함. 지니계수와 상관계수는 순서대로 0.997, 0.995, 0.993, 부분결정계수도 팔마비율이 5분위 배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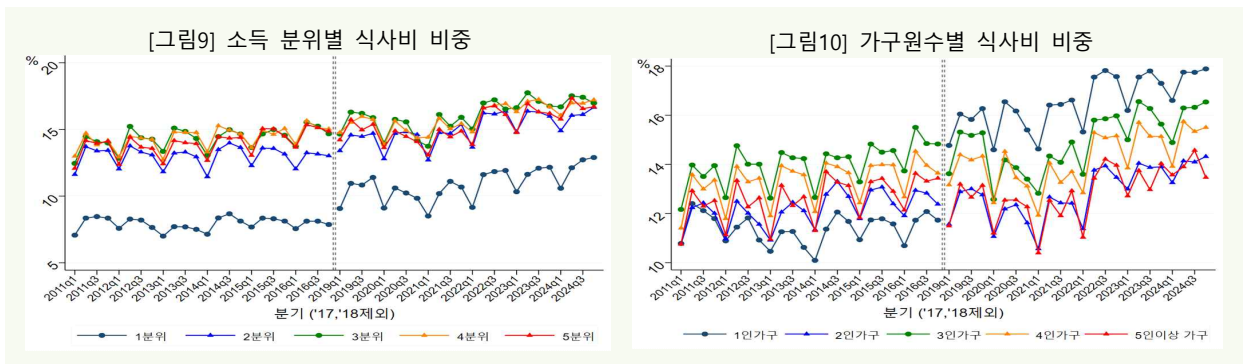


③ 앵겔계수의 재발견: '외식'이 필수재가 된 시대

전통적인 앵겔계수(식료품비/총지출)는 하락하는 추세지만, 식사비(외식(배달), 단체식, 주점 및 커피)를 포함한 '광의의 앵겔계수'는 전 계층에서 상승 추세에 있음.



외식 등을 포함하는 식사비는 모든 소득 분위와 모든 가구원수 가구에서 증가 추세에 있음.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2019년 이후 외식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배달 플랫폼 활성화, 1인 가구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1인 가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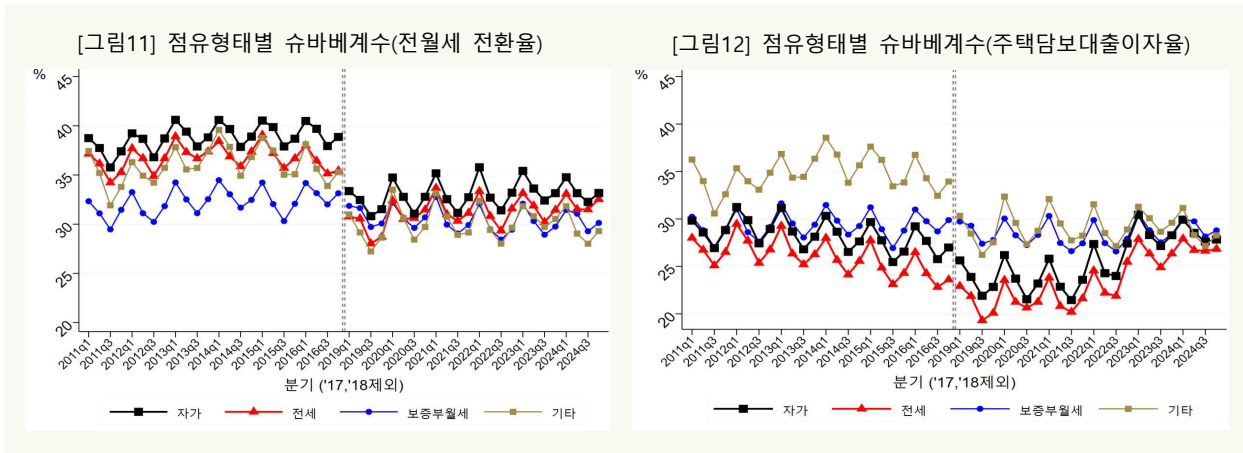


주요 결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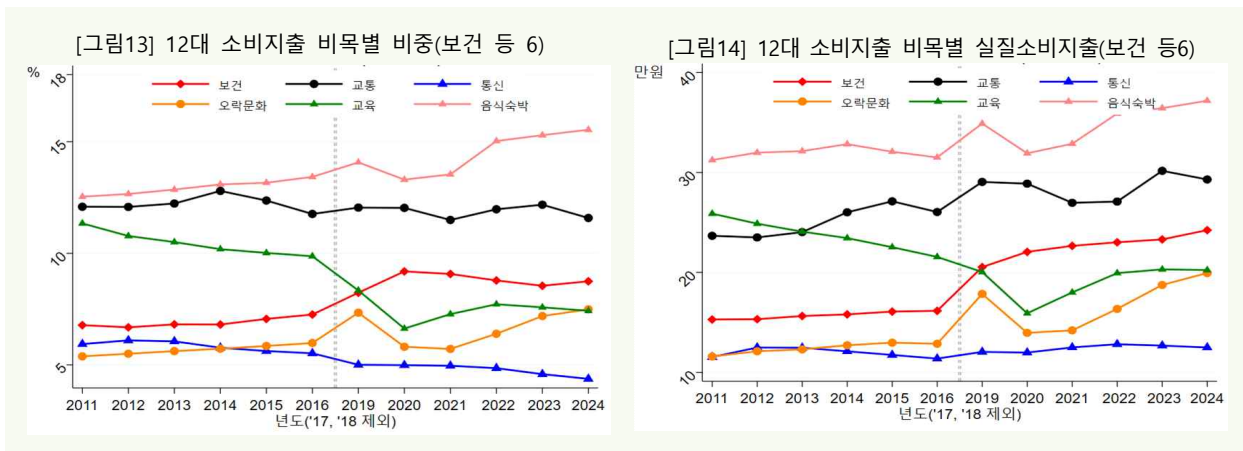
④ 주거비 부담: 숨겨진 비용 '의제주거비'의 영향

실제주거비는 월세가구에서만 측정되므로 주거비를 과소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전세 및 자가의 주거비를 의제주거비로 간주하여 추정함.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한 경우는 전세와 자가에 대하여 월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소위 주택시장을 통한 주거서비스비용 산정 방법). 이자율을 이용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집주인이나 임차인의 자본 조달 비용을 측정(소위 주거 서비스를 가계의 신용에 따른 금융시장을 통한 부담)한 것임. 전반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의 주거비가 더 높음[그림11]. 또한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할 경우 전세, 자가, 월세의 주거비 비중이 큰 차이가 없으나. 이자율을 사용한 경우 전세가 가장 부담이 적고 시기에 따른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임.



⑤ 소비트렌드의 구조적 변화 : 교육 감소와 보건, 음식·숙박, 오락·문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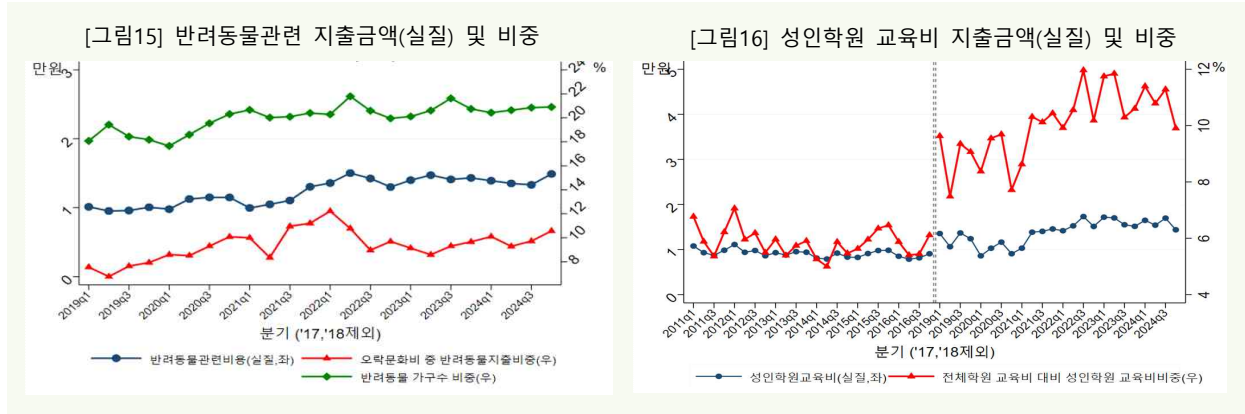
12대 비목 중 소비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질 소비지출 금액 모두 하락하는 비목은 교육이고, 모두 상승하는 비목은 보건, 음식·숙박, 오락·문화임. 교육과 보건 항목의 변화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변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음식·숙박, 오락·문화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주요 결과
(계속)

⑥ 새로운 소비 동향: '가치'와 '편의'에 지불하는 가격

오락문화비 중 반려동물 지출 비중은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관련 지출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기계발 등 성인들의 직업훈련 및 학원비 지출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건강, 운동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운동시설 이용 금액과 오락·문화비 중 운동시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시사점

가계의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하여 소득과 소비지표라는 이중 축(Dual-Pillar) 관리가 필요함. 특히 '소비 팔마비율' 지표는 소비의 분배 상태를 잘 나타내면서도 상하위 계층 간 소비 격차를 잘 나타내 대중적 수용성이 높을 수 있음. 엔겔계수와 슈바베 계수의 최근 방향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 소득 지표와 달리, 소비지표는 교육, 보건 등 소비 동향의 구조적 변화와 반려동물 등 새로운 소비 동향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과제는 자료 활용 제약으로 인과관계보다는 전반적인 가계경제 현상만을 보여 주고 있다는 한계에 있음. 향후 지역별, 연령대별, 가구 특성별 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소비 특성과 고령층 소비 특성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김대일. (2015).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 연계". 노동경제 논집, 제38권(2), pp. 22~58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 (2025).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 한국재정학회. (2024). "가계동향조사 지표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의 내용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리서치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국가데이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행 일 2026년 4월 30일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 행 인 김 진

주 소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6~8층

전화번호 042-366-7118

홈페이지 mods.go.kr/dsri